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2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겨울 숲
2. 법정 스님 편지
어제는 참 좋은 날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어떤 것이 진정한 불교인지 2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대장장이 춘다 2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보살도를 구하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말과 침묵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실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2월 1일 발행, 통권 336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겨울 숲

겨울바람에 잎과 열매를 훨훨 떨쳐 버리고 빈 가지만 남은 잡목 숲. 가랑잎을 밟으며 석양에 이룬 숲길을 거닐면 문득 나는 내 몫의 삶을 이끌고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헤아리게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세월을 제대로 살아 왔는가를 돌이켜 볼 때 나는 우울하다.

지난가을, 말빛을 갠느라고 거의 산거를 비우다시피 하면서 여기저기 시정을 동분서주했다. 일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오자 그사이 잎이 물들었다가 벌써 낙엽이 지고 있었다.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밤바람 소리에 한 동안 잊고 지내던 내 속뜰이 되살아났다. 평화와 정적이 깃든 그 내면의 여로旅路.

산에서 듣는 바람소리는 꺾전만을 스치는 것이 아니다. 저 뻗속에 묻은 먼지까지도, 핏줄에 섞인 티끌까지도 맑게 씻어 주는 것 같다. 산바람 소리는 잣 비질을 하고 난 뜰처럼 우리들 마음속을 차분하고 정결하게 가라앉혀 준다. 인간의 도시에서 묻은 온갖 오염을 씻어 준다. 아무런 잡념도 없는 무심無心을 열어 준다.

이 세상에 만약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살아 있는 것은 시들시들 질식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빛이 바래 재가 되고 말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이 있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들리는 것이 있게 된다.

인도의 구루인 라즈니쉬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한 방울 물을 잘못 엮지를 때

우주 전체가 목마를 것이다

한 송이 꽃을 꺾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한 부분을 꺾는 일

한 송이의 꽃을 피운다면

그것은 수만 개의 별을 반짝이게 함이더라

아,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처럼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졌느니라

산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요?”라든가 “너무 고요해 안 되겠는데요”라면서 무엇에 쫓기듯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부류들이 있다. 물론 그들은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말하자면 도시형 관념적인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도시의 혼잡과 소음에 잔뜩 중독된 나머지 원초적인 질서와 고요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어디에도 의존함 없이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 기대지 않고는 홀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고요를 감내할 수 없어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묻히도록, 맑고 투명한 새소리가 무색하도록 트랜지스터를 틀어 대거나 고래고래 고향을 질러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정말 이상야릇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있음’에만 의존하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침묵 없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발음될 수 있단

말인가? 바다 없이 어찌 육지만 덩그러니 솟을 수 있을까? 어느 하나 허虛를 배경 삼지 않은 실實은 존재할 수 없다.

《금강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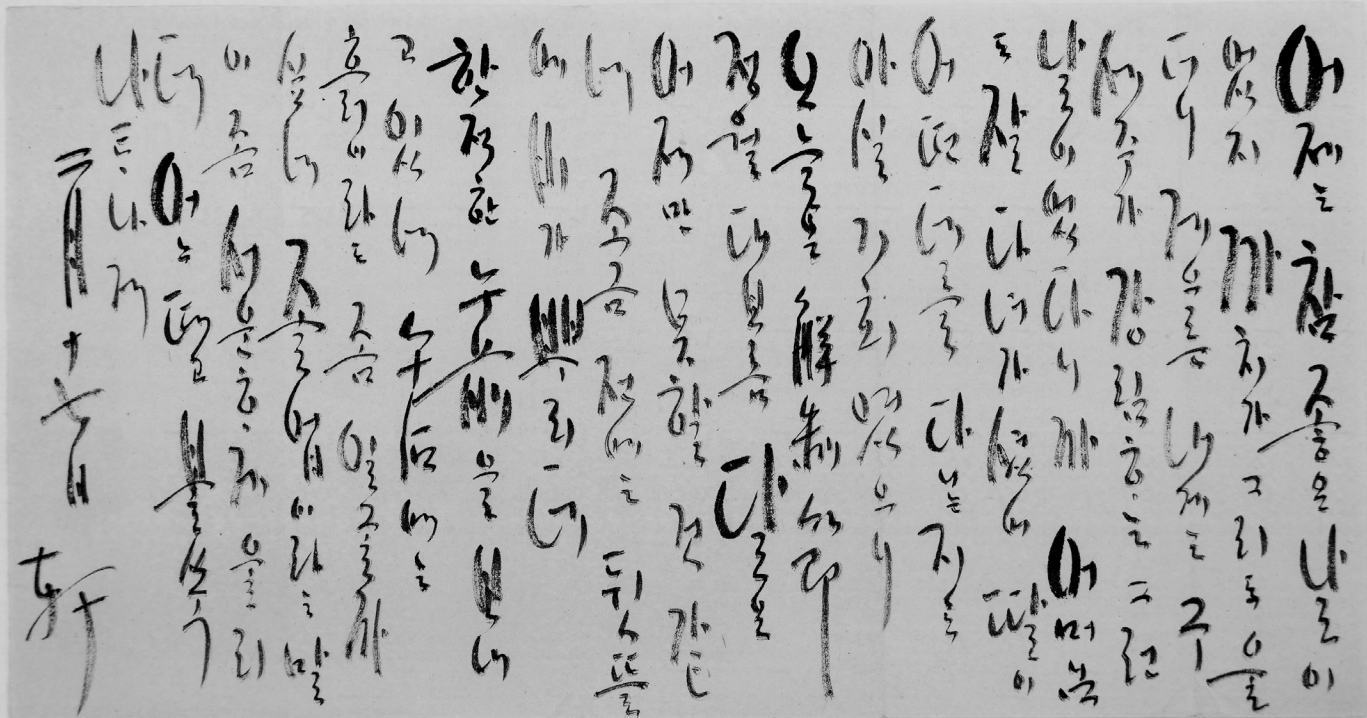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 그러니 제상諸相과 비상非相, 즉 현상과 본질을 함께 볼 수 있다면 비로소 우주의 실상實相을 바로 보게 될 거라는 뜻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로 인식하려면 드러난 단면만 보지 말고 그 배후까지도 함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겨울 숲은 부질없는 가식을 모조리 떨쳐 버리고 본질적인 것으로만 집약된 나무들의 본래 면목이다. 숲은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다. 침묵을 딛고 일어선다. 봄날 움을 틔워 초록빛 물감을 풀어 수줍게 설레다가,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아 서늘한 그늘을 대지에 드리운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익히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울긋불긋 서로 손짓하다가 마침내 미련 없이 낙하. 머리와 팔을 허공에 치켜든 채 이제는 말없이 묵상에 잠겨 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을 만들어 준다. 이 창조의 노력이 멎을 때 나무건 사람이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들은 표정을 잃은 채 덤덤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잠시도 창조의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땅의 은밀한 말쑥에 귀 기울이면서 새봄의 싹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다가 시절 인연이 오면 안으로 다스리던 생명력을 대지 위에 활짝 펼쳐 보일 것이다.

2. 법정 스님 편지



어제는 참 좋은 날이었지.
 까치가 그리도 울더니 게으른 내게는
 구세주가 강림하는 그런 날이었다니까.
 어머니도 잘 다녀가셨어.
 딸이 어떤 데를 다니는지를 아실 기회였으니.
 오늘은 解制節.
 정월 대보름달은 어제만 못할 것 같네.
 조금 전에는 뒤뜰에 비가 뿌리데.
 한적한 午前을 보내고 있네.

午後에는 흙이라도 좀 일굴까 싶네.
 졸업이라는 말이 좀 서운하게 울리데.
 어느 때고 불쑥 나타나게.

二月十七日
 軒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반야화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어떤 것이 진정한 불교인지 2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2002년 2월 26일에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조주 스님은 그와 같이 가난한 절에서 40년을 주지로 지내면서도 신도들에게 도와 달라는 편지 한 통 쓰지 않았어요. 먹는 것이 시원치 않아 뼈적 말랐지만 그 기상은 깨끗해서 옛사람의 자취를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불교 박해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法難이라고, 북위의 태무제太武帝, 북주의 무제武帝, 당의 무종武宗, 후주의 세종世宗, 즉 삼무일종의 4황제 치하에서 입은 박해를 말해요.

조주 스님 시절에는 무제가 불교를 탄압할 때였는데, 스님들을 잡아다 죽이고 환속시키고 절을 불태워요. 조주 스님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주름을 달래면서 정진합니다.

중국에서는 좌선할 때 선상에 앉아요. 선상의 다리 하나가 부러지자 타다 만 장작개비를 대고 새끼로 묶어서 사용해요.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나설 때마다 스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이런 자취를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호사스럽게 지내요. 뭐 좀 부서지면 던져 버리고 새로 마련하잖아요. 누가 새로 사 주겠다고 하면 홀랑 받아들인다고요.

옛 수련자는 이와 같이 깨끗한 정신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승가의 청정한 가풍입니다. 이런 검소하고 깨끗한 가풍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 당시 고향을 치고 주장자로 치는 교화 방법을 썼지만 조주 스님 어록을 보면 스님은 말로써 중생 교화를 많이 합니다.

어떤 지방 장관이 스님에게 물어요.

“큰스님일지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스님은 태연히 대답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요.”

“아니 큰스님께서 어쩌서 지옥에 들어가십니까?”

“만약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소?”

무서운 대답입니다.

여기서 헛갈리지 마세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들어가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원력願力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은 자기 업력業力에 의한 것이예요.

120살로 세상을 하직할 때 스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화장하여 흩어 버리고 사리 같은 것을 줍지 말라. 선가의 제자라면 세속인과 같지 않아야 한다. 욕심이란 덧없는 헛것인데 타고 난 재에서 사리를 줍는다니 당치 않은 수작이다.”

이 말을 남기고 스님은 앉아서 입적합니다.

사리는 샴리라는 인도 옛말인데 타고 남은 유골이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다비를 해요?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예요. 또 시주의 땅을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서도 시주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죽어서까지 시주의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에서 태워 없애는 거예요.

고려 시대 백운 스님이라고 큰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다음과 같은 임종계를 남깁니다.

“내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무는 곳 없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몸은 본래 없는 거예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부모를 의지해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임시로 포장된 물건이예요.

백운 스님은 재로 만들어 사방에 흩어 버리고 제발 시주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고 남은 뼈를 주워서 돌을 깎아 탑이나 부도를 세우는 일도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서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문제 삼아야지 타고 남은 재에서 무엇이 남았느냐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작된 건 아닌데 큰스님들이 죽으면 태워서 사리가 몇 개 나왔다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시춧돈을 걸어 돌덩이 깎아서 탑을 세운다, 무슨 불상을 만든다, 그전에 없던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선가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불교가 잘못 흐르고 있어요.

누구를 지적할 것 없이 진정한 불법은 결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헛된 것이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인지 곰곰 헤아리기 바랍니다.

(끝)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대장장이 춘다 2

《유행경 遊行經》에 보면, 춘다의 집에서 공양을 할 때 대중 가운데 나이 많은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뒤늦게 출가한 늦깎이였다. 그가 대식가여서 그랬던지 아니면 식탐 食貪 때문이었던지 자기 몫 이외에 다른 그릇에다 먹음직한 음식을 더 받았다. 이를 보고 공양이 끝난 뒤 춘다는 부처님께,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법문을 청하게 된 것이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수행승을 두고 볼 때 그 종류의 다양함에 우리는 착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듯이, 떡물웃 입고 머리 깎고 중 행세하는 부류들도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허구한 날,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지하도에서 목탁을 치며 탁발 아닌 구걸을 일삼는 무리가 더러 있다. 어떤 종파의 승려인지, 옷만 빌려 입은 사기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밖에서 보면 떡물웃 입고 머리를 깎았으니 똑같은 ‘스님’으로 보일 것이다.

절에 몸을 담고 있어도 공동생활의 질서를 무시한 채 세속의 업을 익히면서 돈 버는 일에만 골몰하는 그런 중들도 얼마든지 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로 행세, 시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부처님의 덕화는 고사하고 도리어 부처님께 욕을 보이는 그런 승려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들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

고 경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말세’라는 말을 쓴다. 말세 의식은 부처님 생존 시나 예수님 당시에 없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릇된 가치 의식에 사로잡혀 인륜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을 때, 악독한 지배세력이 무고한 백성을 괴롭혀 사는 일이 몹시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불의가 정의를 유린할 때를 가리켜 말세니 말법시대니 하는 말을 썼다.

우리가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오늘이 과연 말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말세 의식은 언제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지만, 선거 유세장에서 살벌한 폭력이 난무하고, 주장이나 뜻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한밤중에 파괴와 살육이 자행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은 절대로 아니다.

정치가 무엇이고 국회 의원이 무엇이기에 세상이 이토록 시끄럽고 사분오열 갈가리 찢기고 흩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무엇인가 혹해서 미쳐 날뛰고 있는 것만 같다.

예전에 비해 우리의 살림살이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겼는데, 사람값은, 그리고 그 꼴은 말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 번듯한 집과 호화로운 가구와 편리한 가전제품인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지 물건의 더미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뒷보다도 먼저 눈을 떠야 한다. 내가 내 눈을 떠서 세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

온갖 의혹을 극복하고 세속적인 고뇌를 떠나 열반(안온, 평안)을 즐기는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한다. 또 자기 분수 밖의 탐욕을 버리고 신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한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금속 세공인 춘다의 물음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대답하면서도 ‘눈 뜬 사람들은 말한다’고 한 표현이다. 불교란 어떤 특정인의 가르침이 아니고 ‘눈 뜬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눈을 뜨면 누구나 본래적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당시 인도 사회에는 많은 사문(수행자)들이 있어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 대표적인 것이 6파철학이다. 춘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직업상 여러 계층의 사문들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행자가 진짜고 사이비인지 때로는 혼란이 일어났을 법도 하다. 그래서 세상에는 얼마나 되는 수행자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대중 앞에서 의례적으로 설법이나 강연을 한다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최고 가치인가를 알아서 진리를 말하고,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가릴 줄 아는 사람, 확고한 신념으로 그 어떤 주장에도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보살도를 구하다

선재동자는
명지 거사의 처소에서
이 해탈문을 듣고
복덕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복덕의 발을 갈았다.
복덕의 산을 쳐다보고,
복덕의 나무에 나아가고,
복덕의 광을 열고,
복덕의 법을 보고,
복덕의 바퀴를 깨끗이 하고,
복덕의 덩이를 맛보았다.
복덕의 힘을 내고,
복덕의 세력을 늘리면서
점점 남쪽으로 나아가다
사자궁성에 이르러 법보계 장자를 찾았다.
그 장자가 마침 저자에 있음을 보고
그의 앞에 나아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저에게 보살도를 말씀해 주소서.
저는 그 도를 의지해

일체지一切智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때 장자는 선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선남자여, 먼저 내 집을 보라.”

선재가 그 집을 살펴보니,
맑고 눈부신 순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은으로 담을 쌓고
파리玻璃로 전각殿閣을 만들고
감유리보紺瑠璃寶로 누각을 삼고
차거磗磑로 기둥을 세웠다.
또한 온갖 보배로 두루 장엄하고
붉은 마니주摩尼珠로 사자좌師子座를 만들었다.

그 집은 굉장히 넓어
10층으로 여덟 개의 문이 나 있었으며,
선재는 안으로 들어가 차례로 살펴보았다.

맨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보시하고,
2층에서는 의복을 보시하고,
3층에서는 보배 장엄거리를 보시하고,
4층에서는 채녀婬女와 온갖 진귀한 보배를 보시하고,
5층에서는 구름처럼 모여든 제5지 보살이
법을 설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라니문과 삼매의 결인結印과 지혜 광명을 성취했다.

6층에서는 보살들이 심히 깊은 지혜를 이루어
법의 성품을 분명하게 통달했다.

광대한 다라니와 삼매의 걸림 없는 문을 성취해,
다니는 데 걸림이 없고
두 법에 머물지 않으며,
말할 수 없이 미묘하게 장엄한 도량에 있으면서
여럿이 모인 곳에서
끝없는 바라밀문을 분별해 나타내 보였다.

7층에서는 보살들이 메아리 같은 지혜(如響忍)를 얻어
방편 지혜로써 분별하며 관찰해 벗어남(出離)을 얻고,
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지니게 했다.

8층에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데
모두 신통을 얻어 물러나지 않으며,
한 음성으로 시방세계에 두루 하고
몸이 모든 도량에 나타나 온 법계에 두루 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지에 두루 들어가
부처님의 몸을 보고,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 상수上首가 되어 법을 설했다.

9층에는 일생보처 보살들이 모여 있었다.

10층에는 여래가 가득 차 있는데,
처음 발심한 후로 보살행을 닦으며
생사를 초월해 큰 서원과 신통력을 이루고,
부처님의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을 청정케 하며,
바른 법륜을 굴러
중생을 가르치던 것과 같은
여러 일을 다 분명히 보게 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말과 침묵

말을 할 때마다
쓸쓸함이 깊어 가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리석기 때문일까

마음속 고요한 말을 꺼내
가까운 이들에게
소리로 건네어도
돌아오는 것은
낮선 메아리뿐

말을 하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간
내 꿈의 조각들은
언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말을 거듭할수록
목이 말라 찾아오는
침묵의 샘

이곳에 오래 머물러야
나는 비로소
맑고 고운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찰랑이는
소리를 듣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3일(금)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필사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빈찬 나눔 자원 활동: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법정스님 13주기 추모법회
 - 16일 오전 11시 설법전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시민서로배움터: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소식지 발송: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무국 업무 보조, 사육 청소 봉사자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줄기 캠페인: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2월 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 일시: 2월 2일(목) 오전 9시 50분~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입춘방'과 '삼재소멸부'는 2월 4일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 회향: 2월 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춘계관음기도 입재

- 입재: 2월 6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법정 스님 13주기 추모 법회

- 일시: 2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설법전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중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 원	영가등	10만 원
가족등	10만 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 원

●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2월 4일	오후 6시 40분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2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2월 1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2월 2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